

보도자료



무 의

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과 장 정연우 사무관 안광열

042-481-5168 042-481-5175

● PEN (SURAL)

8공부리 공공처라를 자유이용하락

2019년 7월 2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배포 즉시 게재 바랍니다.

「Start-up, Start IP 캠페인」업무협약 체결

- 특허청, 대한변리사 등 IP 유관기관과 스타트업의 IP경쟁력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시행 -

- □ 특허청(청장 박원주)·중소기업중앙회(회장 김기문)·대한변리사회 (회장 오세중)·한국창업보육협회(회장 정의붕)·한국지식재산협회 (회장 오정훈)는 7월 26일(금) 오후 3시 특허청 서울사무소(서울 강남구)에서 『Start-up, Start IP 캠페인』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- 「Start-up, Start IP 캠페인』은 업력 3년 이내의 특허 출원 경험이 없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IP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첫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,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.
- □ 특허청 등 다섯 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**이번 캠페인은** 중소 기업중앙회, 대한변리사회, 한국지식재산협회 및 한국창업보육협회 등에 소속된 **가 분야 전문가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진행**된다.
- 중소기업중앙회는 스타트업이 중소기업 CEO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IP의 중요성과 기업혁신 사례를 전파하는 등 스타트업 성장기반을 조성한다.
- o 대한변리사회는 스타트업 첫 특허 확보를 위한 변리서비스를 제공할 변리사들을 모집하고, 스타트업에 제공되는 변리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.

- o 한국지식재산협회는 스타트업을 위한 실무교육, IP관련 세미나 및 유수 기업의 IP담당자들과의 교류 네트워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예정이다.
- o 한국창업보육협회는 협회에서 보육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캠페인 홍보 및 참여 희망기업을 캠페인 협약기관과 공유하여 스타트업이 협약기관의 IP관련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□ 특허청은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IP투자 편드를 조성하고, IP빅뱅 패키지를 신설*하여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에 연간 1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.
 - * 유망 스타트업의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IP권리화, 특허조사분석, 특허 가치평가 등 全 분야 IP서비스 지원
 - 아울러, 국제지식연수원의 IP교육 컨텐츠를 스타트업에 개방하고,
 스타트업과의 현장소통을 확대하는 등 스타트업의 지재권에 대한
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.
- □ 박원주 특허청장은 "특허청은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앞장설 것"이며
 - "『Start-up, Start IP 캠페인』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, 국내 스타트업들에 IP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혁신 창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- □ 한편, 『Start-up, Start IP 캠페인』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8월 2일까지 각 지역의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안광열 사무관(☎042-481-517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